

광주시, 복합쇼핑몰-골목상권 상생 해법 모색

시·민주당 광주시당, 복합쇼핑몰 대시민 공개토론회
지역경제 영향 진단·정책적 대안·상생 모델 등 논의

광주시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함께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골목상권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광주시와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23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 영향과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대시민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복합쇼핑몰이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소상공인·소비자·전문가·시민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인 상생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개 논의의 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

토론회는 김은희 전남대학교 교수가 좌

장을 맡았으며,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대규모 점포 출점이 지역상권 및 골목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상생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에는 이기성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 민경본 광주상인연합회장, 손희정 광주소비자단체협의회장, 이성호 국립한밭대학교 교수, 김명진 전북과학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지역 상권의 경쟁력 확보 방안,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긍정 효과와 지속 방안, 복합쇼핑몰과 지역상권의 구체적 상생 방안, 용역보고서의 신뢰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복합쇼핑몰과 지역상권 간 상생방안으로 복합쇼핑몰 로컬 매장 마련, 지속가능한 상생발전기금 조성, 상생홍보관 등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함께 지난 23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 영향과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복합쇼핑몰 대시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상권 마케팅 방안 마련, 지속적인 상권영향평가 실시 등이 제안됐다.

지정토론 이후 현장에 참석한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질의·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대규모 점포 출점에 따른 생

활권 변화, 골목상권 보호의 필요성, 소비자 선택권 확대, 지역경제 기여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실효성 있는 상생 제도 마련과 상권 영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의 소비구매력을

높이는 핵심으로 복합쇼핑몰을 추진했고, 여러 곳의 입점 사례와 용역 결과를 통해 소비구매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상권 영향과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긍정 효과는 어떻게 극대화할지 등

을 논의해 보자”고 밝혔다.

광주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규모 점포 출점 관련 정책 방향과 상생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선거비 제한액 확정...광주시장 7억·전남지사 15억

광주·전남 선관위, 6·3 지선 선거별 한도액 공고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주요 선거의 후보자 선거비용 한도액이 확정됐다.

광주·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 소비재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 비율(8.3%)을 적용해

산출한 뒤, 선거사무관계자 총 수당 인상분과 산재보험료를 더해 최종 결정된다.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7억2400여원이 다.

구청장 선거는 북구청장 선거가 2억55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광산구청장 선거가 2억3400만원, 서구청장 선거 2억300여만원, 남구청장선거 1억8400여만원, 동구청장 선거 1억5300여만원 순이다.

지역구 시의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600만원, 비례대표 시의원 의원 선거는 1억2800만원 수준이다.

또한 지역구 구의원 선거는 평균 5000만원, 비례대표 구의원 선거는 6200만원 가량이다.

이번 선거에서 전남도지사 선거와 전남도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15억800만원으로 책정됐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여수시장 선거가 2억2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진도군수 선거가 1억23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의 평균 선

거비용제한액은 약 1억4900만원 수준이다.

다른 선거를 보면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평균 5200만원,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500만원으로 산정됐다.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는 1억5000만원, 비례대표 시·군의원 선거는 평균 4900만원이다.

선관위는 향후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가 변경될 경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진숙 “사조위, 무안공항 둔덕 용역 ‘한계’ 인정”

“일부 참고할 수 있으나 용역 자체 활용하기엔 한계” 답변

환경철도조사조사와위원회(이하 사조위)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총돌 시물레이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한계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조위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사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조위는 “용역이 폭발·화재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다”며 “일부 내용은 참고할 수 있으나, 용역 자체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선 공사로 인한 상판의 존재 여부가 사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상판이 없는 개선 전의 둔덕 구조가 승객에게 더 큰 최대 충격을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조위는 “여러 변수가 고려되지 못한 용역의 시물레이션 결과로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국가기관을 통해 자문 분석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진숙의원은 “전문적인 용역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다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상판이 없는 개선 전의 구조가 승객에게 더 큰 최대 충격을 준다’는 결과와 관련해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보면 지난 2022~2023년(설계변경) 개량사업(상판 콘크리트 지지대 보강) 후



둔덕과 부러지기 쉬운 구조 설치 시 충격량의 사상 등 비교 분석을 지시했는데, 용역보고서 결과에는 과업지시서를 내리지도 않았던 ‘상판이 있을 때와 그 이전을 비교’해 오히려 더 어중간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지난 2020~2024년에 걸쳐 무안공항 방위각 개량사업에 참여했던 공무원 및 관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었다”며 “현재 국토부가 여객기 참사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과기부 등 부처별 국가공무원 1443명 경력 채용

지역인재 경력자 440명·중증장애인 68명 선발도

정부는 올해 부처별로 선발할 예정인 국가공무원 경력 채용 규모가 1443명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6년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선발 계획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kr)과 ‘나라일터’(gojobs.go.kr) 사이트에 공개했다.

부처별 선발 인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가 7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부(201명), 보건복지부(53명), 해양수산부(48명) 등의 순이었다.

다만 아직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부처가 있어 앞으로 전체 채용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선발 일정을 비롯한 채용 공고는 각 부처 홈페이지 또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나라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사처가 주관하는 지역 인재·중증장

애인 경력자, 민간 경력자 채용도 올해 함께 진행된다.

우선 지역 인재의 경우 7급(180명)과 9급(260명)을 합해 총 440명을 뽑는다. 이 가운데 7급은 오는 27일부터, 9급은 7월 27일부터 원서를 받는다.

중증장애인 경력자는 68명을 선발하며, 3월 10일부터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지역인재·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민간 경력자(5급·7급) 일괄채용시험 선발 인원은 부처별 수요 조사를 거쳐 오는 4월 17일 확정해 공고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민주세대 상징’ 이해찬 전 총리 별세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현지서 치료 중 숨져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25일 베트남에서 치료 중 별세했다고 민주평통이 밝혔다. 향년 73세.

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쓰러져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지 이틀만인 이날 오후 2시 48분(현지시간)께 숨을 거뒀다.

이 수석부의장은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스텐트 시술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통하는 고인은 7선 의원 출신으로 국무총리까지 지냈으며 작년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다.

고인은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며 학생 운동과 재야 활동을 거쳐 정치에 입문했다.

민주화 이후에는 국회에 입성해 7선 의원을 지냈고,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각각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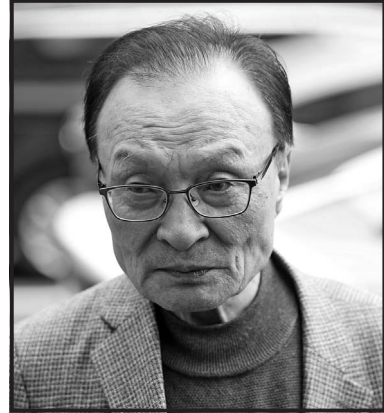
정치권에서는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민주세대의 대표적 인물로, 군사정권과 민주화 이후를 모두 경험하고 목도한 민주세력의 상징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1952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덕수중·용산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1973년 10월 교내 유인물 사건에 연루돼 수배됐고, 이듬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1년 가까이 옥고를 치렀다. 이후 민주화 운동에 몸을 바쳤다.

출소 후 재야에서 활동했다. 1980년 대학에 돌아온 그는 북학생협의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다 그해 6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고, 2년 만에 성탄절 특사로 풀려났다.

1987년 13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낙선한 후 재야 입당파들과 평화민주당에 입당, 이듬해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 출마해 민주정의당 김종인 후보를 꺾고 국회에 입선했다.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만 13대 총선부터 17대까지 내리 5선을 했다. 이후 지역구를 세종시로 옮겨 19·20대



1952년 7월 10일 충남 청양 출생
1971년 용산고졸
1974~1975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투옥
1980~1982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투옥
1982년 성탄절 특사로 석방된 뒤 재야 운동
1986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
1987년 6월 학생 주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총장
1988~1992년 제13대 국회의원
1992~1995년 제14대 국회의원
1995년 인천 1기 서울시 청무부시장
1996~2000년 제15대 국회의원
1998~1999년 김대중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2000~2004년 제16대 국회의원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기 획단장
2004~2008년 제17대 국회의원
2004~2006년 제18대 정부부의 두 번째 총리로 임명
2009~2014년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2012~2016년 제19대 국회의원
2014~2018년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2016~2020년 제20대 국회의원, 7선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2026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2025년 10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2026년 1월 23일 민주평통 아태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 호찌민 출장 중 위독 상태
2026년 1월 25일 베트남에서 치료 중 별세, 향년 73세

까지 7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서울시 정부부시장(1995년), 교육부 장관(1998년), 국무총리(2004년)까지 지방자치와 제도권 정치의 정점을 모두 경험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무총리에 취임해 노무현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등 ‘책임총리제’를 정착시켰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각별한 정치적 동지로서 지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인 2014~2018년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돼 2020년 21대 총선의 압승을 이끌었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김정옥씨와 딸 현주씨가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